



연기자 한채영에게 “망가짐”은 곧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뒤 몇 편의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그 도전을 “즐기면서 하게” 된 자신이 뿌듯하다. 21일 개봉작 ‘이웃집 스타’ 역시 그렇게 작업에 임한 무대가 됐다. 사진제공 | 스포픽처스코리아

영화 ‘이웃집 스타’로 돌아온 한채영

나이 먹어서 그런가?
이젠 예쁘다는 말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이 좋다

요즘 아들 유치원 보내면서 하루 시작 ‘바비인형’으로 불리는 건 지금도 좋아 예능 자신감...이젠 망가지는 걸 즐겨 잘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현재에 만족



연기자 한채영(37)은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21일 개봉한 영화 ‘이웃집 스타’를 통해 2013년 KBS 2TV 드라마 ‘예쁜남자’ 이후 4년 만에 연기자로 팬들을 만나는 이유도 있지만 “즐기면서 일을 하는” 자신이 눈에 보여서다. 2000년 영화 ‘찍히면 죽는다’로 데뷔 후 15년 이상 활동하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게 이런 느낌인 가보다”라고 스스로 놀라워한다. 한동안 중국 활동에 주력하다 국내로 복귀한 그의 즐거운 ‘외침’이다.

한채영은 “편안한 저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동안의 갈등을 토로했다. 큰 키에 서구적인 체형, 빼어난 미모로 지금까지도 ‘바비인형’으로 불리는 그는 연기가 아닌 외모로 각인된 도도한 이미지를 깨고 싶은 바람이 마음 한 구석에 늘 자리 잡았다.

“(2013년에)아이를 낳고 키우다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2’), 이를 동안 세수를 못하는 등(MBC ‘오지의 마법사’) 망가지는 것에 수줍고 두려움이 컸는데, 이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편안해졌다. 스스로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게 영화 ‘이웃집 스타’다. 하지만 편안함과 긴장감을 별개였다. 개봉 전 시사회 등을 통해 영화를 세 차례 관람한 그는 “이제는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볼 수 있다”며 웃는다.

극중 여중생 딸을 둔 톱스타를 연기한 그는 사춘기 딸과 갈등하는 등 좌충우돌하면서 천방지축의 매력을 보여줬다. 실제로도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외모를 보여주지만 행동에서 드러나는 약간의 ‘허당’기로 대중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스스로 변화를 시도한 결단력은 성격에 연연하지 않고 부담감을 내려놓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줬다.

한채영은 “관객 수, 시청률 등 ‘대박’을 생각하지 않게 됐다. 예전에는 ‘잘 해야 한다’는 마음

이 컸는데 이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몇 년 전만해도 한채영은 말 한마디를 꺼내는 데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까봐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가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채영은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딪히고 있다.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도 새삼 깨달았다. 영화 속 연예인 엄마 역할이 실제와 같아, ‘이웃집 스타’를 촬영하며 가족의 고충을 떠올렸다. 그는 “제 활동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지만 연예인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주위 시선을 받지 않나. 저로 인해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들이 성장하면 자신의 속내가 그대로 담긴 ‘이웃집 스타’를 가장 먼저 보여주겠다고 했다.

‘워킹맘’ 한채영은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연예활동하며 엄마와 아내 역할을 병행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업적 특성상 집을 비울 일이 잦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가족에 집중한다. 헬스클럽에 다니며 자기관리에도 철저하다.

“아들에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뭔가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선택권을 주고 싶다. 엄마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항상 ‘네 생각은 어때?’라고 묻는다.”

한채영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될지 기대가 높다.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될지 저도 모르겠다”며 웃는다.

“10년 전에는 예능프로그램 출연 자체를 생각도 못했다. 물론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해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긍정적인 성격이라 고민을 많이 하거나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보다 분명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채영이 연기자로서 계속해서 변신을 꾀하며, 자신을 향한 주위 시선이 시시각각 변해도 달라지지 않길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비인형’이라는 수식어다.

그는 “바비인형으로 불리는 건 지금도 좋다. 제 외모가 바비인형 같아서가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 그 호칭이 익숙해서가 아닐까”라며 “나이를 먹어서인지 이제는 예쁘다는 말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이 좋더라”며 “하하” 웃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방탄소년단, 영국 UK앨범 차트 14위

김규리 “10년이면 대가 충분히 치러”

임신 6개월 이시영, 하프 마라톤 완주

‘킹스맨’ 콜린 퍼스, 伊 시민권 취득

설현, 여자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방탄소년단이 영국 UK차트 앨범과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했다. 23일 영국 오피셜 차트 컴퍼니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새 앨범 ‘러브 유어 셀프 承-Her’와 타이틀곡 ‘DNA’는 영국 UK앨범 차트 14위, 싱글차트 90위를 각각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와 양대 팝 차트로 평가 받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앨범차트에 진입한 것은 2016년 10월 방탄소년단이 ‘웍스’ 앨범으로 세운 62위 기록이 최초였고, 1년 만에 다시 입증하며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DNA’의 싱글 차트 90위 진입은 한국 가수로서는 싸이에 이어 두번째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은 같은 날 스웨덴(sverigetopplistan) 13위, 벨기에(ULTRATOP BELGIAN CHARTS) 18위, 아일랜드(IRMA) 19위, 이탈리아(Top Of The Music) 56위, 독일(Offizielle Deutsche Charts) 57위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앨범 차트에 대거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김규리

배우 김규리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김규리는 24일 인스타그램에 ‘2008년 5월 1일에 썼던 글 전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규리는 2008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바 있다. 당시 적은 ‘나라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글을 다시 게재하며 “저는 그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9년 하고 5개월. 짧은 치기에 쓴 글이다”며 돌아섰다. 이어 “십년이면 글의 대가는 충분히 치른 것 같다.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 걱정 꺼져 드리고 또 부족해서 늘 죄송하다. 죽을힘 다해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다. 그러니 모두 화이팅!”이라고 격려했다.



이시영

임신 6개월인 연기자 이시영이 하프 마라톤을 완주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시영은 2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린 ‘2017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에서 하프 마라톤에 참여해 완주했다. 이날 이시영은 완주와 함께 두 개의 메달을 받았다. 이시영은 이날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메달 사진을 공개했다. 메달을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이시영은 “완주했어요. 해했. 임진각 마라톤, 하프 마라톤, 임신 24주, 임신 6개월, 윤이야 고마워, 윤이야 사랑해, 아기가 있는 우리는 메달도 두 개”라는 글도 게재했다. 이어 “배도 안 아프고 컨디션도 좋았어요”라며 자신의 완주 사실에 뿌듯해 했다. 한편 이시영은 요식업체 사기업인 조모 씨와 30일 결혼한다.



콜린 퍼스

배우 콜린 퍼스가 이탈리아 시민권을 취득해 눈길을 모으는 가운데 외신들이 그 배경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꼽고 있다. 타인 등 외신들은 23일 영국인인 콜린 퍼스가 이탈리아 국적을 새롭게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콜린 퍼스는 영국과 이탈리아 국적을 동시에 지닌 이중국적자가 됐다. 그는 1997년 이탈리아 출신 영화제작자 리비아 지우지올리와 결혼했다. 외신들은 그가 그동안 브렉시트를 반대해왔으면서 지난해 6월 국민투표 결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면서 이탈리아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콜린 퍼스는 최근 주연작 ‘킹스맨:골든 서클’의 27일 개봉을 앞두고 내한 프로모션을 펼친 바 있다.



설현

결그룹 AOA의 설현이 9월 여자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기업평가연구소는 8월21일부터 9월22일까지 여자 광고모델 50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2262만8790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와 소비자 행동분석을 토대로 참여 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소셜가치로 분류해 가중치를 두어 산출한다. 그 결과 설현이 1위를 차지했다. 설현은 참여지수 62만1492, 소통지수 15만9700, 커뮤니케이션지수 129만1872 등으로 브랜드 평판 지수 207만3063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기자 김소현이 브랜드 평판 지수 193만6622, 가수 아이유는 161만5828로 그 다음 순위를 이었다. 이밖에 서현진 김희선 아이린 백진희 전지현 소유 김태희 등이 10위권에 올랐다.